

# 退溪의 漢詩 研究(I)

徐 首 生

《目 次》	
I. 머리말	V. 花木詩의 清真性
II. 退溪의 詩觀	VI. 哲學的 言外有意性
III. 隱喻的 歷史意識	VII. 回文詩의 平淡性
IV. 自然眞樂과 閑靜性	

## I. 머 리 말

退溪는 性理學의 大賢으로 우리의 儒學史上에 奕功을 끼쳤다. 그는 朱子學의 理氣二元論을 받아들여 理氣相須互發說(곧 四端은 理發氣隨, 七情은 氣發理乘)을 주창하고는 七情과 四端을 人心과 道心에 分屬시켜 理尊氣卑를 固守하여 主理의 傾向을 띤 朱子以後 唯一人이라 할 수 있다. 學問의 方法도 知行併進을 주장한 性理大哲이요, 道德君子였다.

退溪는 攻文立道한 大哲人으로서, 美의 韻律的 創造인 詩文學 또한 他的 追從을 許하지 않는 椽大筆로 騷壇의 巨擘이었다.

그의 文集에 二千餘 首의 詩가 傳해져 우리들의 心琴을 울린다. 여기엔 그의 漢詩에 대하여 몇 대문으로 나누어 論述한다.

## II. 退溪의 詩觀

退溪는 攻文立道한 性理學의 大家일 뿐 아니라, 아름다운 서정의 시문학 또한 그의 추종을 허하지 않는 椽大筆로 藝苑의 巨星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退溪는 단순히 經文一致 文學觀에만 치우치지 않고, 理學者 나름대로의 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退溪가 明宗 4年(A. D. 1549) 己酉(49세, 卮)에 豐基郡守로 在任하고 있었다. 제자 月川 趙穆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학문은 오로지 독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널리 유람하며 견문을 넓혀야 합니다. 비록 의리를 얻을 수는 없을지언정 師友가 서로 같고 도우며, 知行을 啓發하는데,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退溪

가 이르기를 “그대의 말이 지당하다. 뜻이 매우 높고 아름답구나.” 또 이어 이르기를 “某氏는 매우 文才가 높으나, 사람됨의 허술함이 심히 한스러운데, 문학에 힘쓰고 있으니, 마음을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하므로, 趙穆이 성급히 대답하기를 “心行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문학이 있더라도 어디에 쓰리오”라고 하니 退溪가 이르기를 “문학을 어이 소홀할 수 있으랴. 문학은 공부하는 까닭은 마음을 바로 잡는데 있다”<sup>1)</sup> 라고 하였다. 실령 문학이 깊을지언정 그 사람됨이 虛疎하면 안되며, 문학이 중요하나, 문학하는 까닭은 正心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退溪는 道德君子로서 문학을 기능 효용면에서 더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道가 있더라도 문장의 표현력 없이 나타낼 수 있겠는가. 詩는 靈感을 받은 一種의 算術이다. 그것이 抽象的인 數나 三角 또는 球形 같은 方程式이 아니라 인간 감정의 方程式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니(Ezra Paund) 詩를 구성하는 두개의 중요한 원리는 格調와 隱喻며,<sup>2)</sup> 內包(intension)와 外延擴張(extension)의 最遠兩極에서 모든 의미를 통일한 것이다.<sup>3)</sup> 또 크리언스 부룩스(Cleanth Brooks 1905~) 같은 이는 “시란 逆說(Paradox)과 아이러니(Irony)가 조화된 언어 조직이다”라고 하였으나, 콜릿취는 “科學者는 물을 H<sub>2</sub>O 라고 부르나, 詩人은 물을 소근거리고, 살랑거리며, 잔잔하고, 푸르다고 한다.” 그러므로, 詩는 고상한 정서의 美的 想像에 의해서 이루어진 음악적 언어라 할 수 있다. 이 美的 韻律의 創造를 하는 이는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正心에 있다고 喝破한 것은 道德君子로서 외칠만한 것이다. 그러나, 예술과 도덕은 그 가치관이 다르다. 예술은 미적 가치로써 積極的이며, 善 그 자체의 認識이지만 도덕적 가치는 이에 반하여 否定的 消極的이며, 惡의 認識이라고 하고, 또 미적 가치는 자발적 가치로 그 대상에 대하여 이해 타산의 관념을 內包하지 않으나, 도덕적 가치는 비록 그것이 積極的인 善의 인식일 경우에도 반드시 이해 타산의 관념이 수반하니 인생을 快樂과 苦痛, 遊戲와 業務란 두 相反分野로 나누어 예술의 對境을 快樂으로 하고, 도덕의 對境을 苦痛으로 하는 샌타야나(Santayana)의 견해도 경청할만하다. 예술의 미적 쾌감과 도덕적 쾌락은 서로 다르다. 예술활동이 자발적이며, 이해 타산의 관념을 내포하지 않으나, 도덕은 비록 적극적인 善의 인식이지만 공리적 관념이 수반한 것은 사실이다. 이 二者의 활동이 目的觀上엔 서로 공통점이 있으나, 활동으로서의 나타나는 경로는 다르다.

그런데, 뷔퐁(Buffon)이 “문장은 사람이다”라고 한 것처럼 退溪는 “詩는 사람이요, 사람은 詩라”고 한 詩觀을 갖고 서정을 승화시켰다.

1) 增補退溪全書四 言行錄 卷二(p. 33~34)

己酉六月拜先生于豐基郡齋, 穆曰學門不專在於讀書, 當遊歷以廣聞見. 雖義理不可以獨得, 當有師友漸磨補助啓沃之益. 先生曰君言極是, 聞君有志甚嘉之. 又曰: 某人甚有文才, 而爲人, 甚虛疎可恨, 是知務文學矣, 治心最緊不可忽也, 余因率爾而對曰: 心行不得正, 雖有文學何用焉, 先生曰文學豈可忽哉. 學文所以正心也.

2) Welleck and Warren 著 Theory of Literature (A Harvest Book) p.175

3) Allen Tate 著 現代文學의 領域(p.99) 김수영 역

退溪는 만년에 이르러 뚜렷한 理氣哲學觀을 갖고, 森羅萬象을 靜觀하며, 세계와 인간을 理氣二元論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退溪는 인간을 중심으로 理氣를 해명함으로써 그 해명을 갖고 自然까지 推理케 하고, 栗谷은 自然을 중심으로 理氣를 설명함으로써 그 이치를 갖고 인간까지 究明케 한다. 그 출발의 기본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도달점도 다르다. 退溪가 인간을 출발점으로 하여 인간 존재의 理性(道心)과 感性(人心)의 兩面을 理와 氣에 分屬시켜 우주자연에 있어서도 理發氣發의 互發이란 세계관을 수립함에 대해 栗谷은 자연의 生成을 氣發理乘으로 관찰함으로써 그것을 인간존재에까지 推演하여 氣發理乘이란 理氣一途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退溪는 朱子の 理氣二元論의 세계관을 갖고, 理氣互發說을 제창하였다. 朱子の 이른바 「不可分開」보다는 「決是二物」쪽을 取하고, 그것을 實在上的 二物로 보아서 理氣互發을 내세우므로 四端은 理發이요, 七情은 氣發이라 하였다. 그런데, 奇高峯과의 四七論爭에서 互發說을 堅持하면서 修正하여 결론짓되, 四端은 理發氣隨之하고, 七情은 氣發理乘之라고 주장하였다. 朱子가 理氣를 決是二物이라 한 것은 理를 所以然이나 所當然으로 보아 理는 無作用(無化)이며, 能作用(有化)하는 質料的인 氣와 대립시켜 理氣二物이라 하였으니, 개체나 우주관에서 본다면, 개념상 理氣決是二物이 渾淪無間으로서 실질상 不可分開라 주장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退溪는 理도 作用(有化·有爲)하는 質料性的 存在요, 氣도 作用(有化·有爲)하는 質料性的 存在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理는 天理로서 순수활동적 存在요, 氣는 現象的인 雜駁活動的 存在로 보아 그 理貴氣賤觀<sup>4)</sup>이 나타나서 朱子の 決是二物의 分開는 더욱 굳어졌다고 볼 수 있다. 退溪는 氣는 주로 形氣面을 局限시키는 경향이 있기에 人欲의 所從來로 보아 그 雜駁性和 賤性을 드러내나, 理는 天理의 純粹性和 高貴性이 內在되어 있다고 본다. 그것도 理氣二元觀과 이에 따르는 理氣互發說의 所致라고 본다. 이 理貴氣賤觀은 드디어 도덕적 선악의 문제로 직결되며, 理는 極尊無對이기에 純善이라 할 수 있고, 氣엔 有善惡思想이 나오게 된다. 理學에서는 理를 所以然 所當然으로 보므로 理는 純善無惡이라 한다.

退溪는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때 상황에서 新儒學인 性理思想을 재인식한 大哲人이었다. 그는 聖賢의 교학사상을 形而上學的 高遠한 세계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人倫生活에서 그것을 會得함으로써 인간을 슬기롭게 하였다. 그의 教學精神은 下學上達하는 具體的 普遍을 止揚하고,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性理學에서는 道問學과 尊德性을 兩大支柱라 할 수 있다. 朱子는 中年까지도 道問學에 치우쳤으므로 退溪는 이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尊德性을 굳게 인식했다. 그러나, 그는 인륜 도덕의 當爲性을 세우는 이론을 가버이 여기지 않고, 立言垂後<sup>5)</sup>를 존중하였다. 理論과 實踐의 관계는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학문의 성격이 규정된다고 하는 철학적 문제로 등장하

4) 退溪集 卷一二 與朴澤之 人之一身 理氣兼備 理貴氣賤 然理無爲而有欲 故主於踐理者 養氣在其中 聖賢是也. 偏於養氣者 必至於賤性 老莊是也. 於是 無爲者 自然而然 莫之爲者也.  
5) 晦齋集 行狀(退溪撰)

고 있다. 朱子는 知와 行이 사람의 두 다리와 같이 서로 앞서거나 뒤처거나 하면서 나아가간다는 知行互進을 주장하였으며, 王陽明은 知와 行이 一致한다는 知行合一을 주장하였으나, 退溪는 知와 行은 수레의 두 바퀴와 새의 두 날개처럼<sup>6)</sup> 서로 서로 나아가간다는 知行併進을 주장하였다. 그 統一의 원리로서 敬을 매우 존중했다. 그는 功利主義의 道德을 배척하고 行爲의 結果보다도 行爲의 動機를 중시하는 心術道德을 力說하였다. 그러므로 退溪는 도덕군자로서 도덕 실천을 강조함에 있어 動機論者라 할 수 있다. 다만 의무에서 〈無所爲〉義務를 행한다는 〈無所爲說〉은 도덕적 행위의 원칙을 闡明하는 것이니 오늘날의 法則倫理學의 先驅라 할 수 있다. 이 法則倫理는 古代 그리스의 스토아(Stoa) 學派에서 비롯되긴 하였으나, 근세에 와서 칸트(Kant)가 이를 체계화하였다. 그러나, 退溪는 칸트보다 二百年 앞서 法則倫理를 領得하였으니 실로 놀랍지 않을 수 없다. 教育分野에도 立志爲先과 感發興起 등을 강조함으로써 現代 教育學의 方法論에서 논의하는 教育과정의 恒常性和 非恒常性を 先導한 것은 卓見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退溪는 確固한 理氣二元觀에다 理氣相須互發說을 주창하여 理貴氣賤으로 치달아 主理의 傾向이 있었고, 知行併進과 法則倫理를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道德行爲의 動機論을 제창하고 克己修道함에 있어서 主敬工夫를 증시한 道學君子였다. 그러므로 矜豪放蕩하고 褻慢戲狎하며 淫哇不貞<sup>7)</sup>한 詩를 배척하고 溫敦·純靜한 詩觀으로 치달아 遇物에 기본서정을 吐露하였다. 溫柔敦厚와 純靜한 詩의 世界로 退溪의 言志<sup>8)</sup>가 살찌었다.

‘喜林大樹見訪論詩’란 五言古詩 중에서 林大樹(億齡)의 「吾詩尚豪宕 何用巧剗削」이란 내용에 대하여 退溪는 의견을 달리하여 가로되,

스스로 시에 道通한 사람이 아닐진면, 어찌 시의 법도를 버릴 수 있으리오. 大賢도 시의 법도를 쓰지 않고 잘 지었던 말을 들었는가. 加工하고 법도에 맞추어 보려고 어찌 조금 고개를 숙이지 않으랴.<sup>9)</sup>

그러므로 시는 다듬고 法度를 쓰고 음율에 잘 맞추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溫敦·純靜한 詩觀을 가지면서 鍛鍊에 鍛鍊을 거듭하여 법도에 맞추어야 한다는 견해였다.

退溪는 早年부터 終年 사이에 중국문단의 대시인들의 영향을 받아 시적 상상에 다음을

6) 退溪集 答李剛而問目

知行二者 如兩輪兩翼 互爲先後 相爲輕重……

7) 增補退溪全書 五 陶山十二曲跋(p. 10)

退溪集 卷四三 23張 陶山十二曲跋

“右陶山十二曲者 陶山老人之所作也 老人之作此 何爲也哉 我東方歌曲 大抵多淫哇 不足言 如翰林別曲之類 出於文人之口而 矜豪放蕩 兼以褻慢戲狎 尤非君子所宜尚 惟近世 有李龜六歌者 世所盛傳 猶爲彼善於此 亦惜乎其有玩世不恭之意 而少溫柔敦厚之實也”

8) 退溪集卷一 東岩言志, 退溪集卷三 永求志(和子中屈二十詠)

退溪集 卷三 陶山言志, 退溪文集續卷一 東岩言志, 退溪全書三(p. 22) 三月病中誌.

詩를 內容과 形式으로 分離할 수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詩를 定義하는 경우, 곧 “詩言志 歌永言”(書經堯典)이라 하였다. 詩를 뜻(志)으로 보니까 詩의 內容 곧 포에지를 定義한 것이다.

9) 退溪全書二 別集卷一(p. 528~529)

自非聖於詩 法度安可輟 寧聞大賢人 不用規矩密 曷不六抵頭 加工鍊與律.

## 退溪의 漢詩 研究

썼다. 陶淵明, 杜甫, 韓愈, 柳宗元, 白樂天, 劉禹錫, 歐陽修, 蘇東坡, 邵雍, 朱熹 等の 詩를 읽고, 次韻·用韻·和韻했다는 것은 文集 到處에 보인다. 그 中에서도 陶·杜·歐·蘇·朱의 詩를 가장 사랑하였다. 初年엔 蘇詩를, 晩年엔 朱·邵詩를 사랑하였지만 陶杜朱詩를 즐겨 읽고 人間抒情을 昇化시켰다.

退溪의 弟子 文峯 鄭惟一은 “先生이 詩를 좋아하되 陶淵明과 杜甫의 詩를 즐겨 보았으나, 晩年엔 朱子의 詩를 더욱 즐겨 읽었다”<sup>10)</sup>고 하였으니 這問의 事情을 알 수 있다. 그런데 退溪는 ‘文學을 工夫하는 것은 마음을 바로잡는 데 있다. 옛날부터 어찌 詩書를 공부하지 않는 理學이 있었는가? 詩經을 읽는 것이 心學에 切實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 문인 듯한데 그것을 읽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는 큰 잘못이다’.<sup>11)</sup> 라고 생각하면서 鄭子 中의 和閒居二十詠에 이르러서는 다음과 같이 읊음으로써 시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드러났다.

### 吟 詩

詩不誤人人自誤	사람이 잘못이지 시잘못이라,
興來情適已難禁	흥겨워 감정나면 안지울손가.
風雲動處有神助	풍운이 이는 곳에 영감이 일어,
輦血消時絕俗音	목은피 가실 제 속가 끊치리.
栗里賦成真樂志	참뜻을 그리베타 울리 도연명(陶淵明),
草堂改罷自長吟	시고쳐 읊조렸네 초당 두소릉(杜少陵).
緣他未著明明眼	만일로 밝은 식견 못드러내도,
不是吾緘耽耽心 <sup>12)</sup>	내 편지는 시를겨운 그 맘 아예요.

詩가 사람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詩를 그르친다. 興이 일고 感情이 나면 詩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바람과 구름이 일고 움직이는 곳엔 神이 도와 詩를 짓게 하고, 목은 피가 식었을 때 俗된 노래 끊어진다. 栗里의 陶淵明이 詩 지어 참뜻을 즐기고, 草堂의 杜甫도 詩를 推敲해 놓고 길게 읊었다. 陶·杜도 시를 지어 敦厚·純靜한 인간성을 표현하였으니 退溪도 遇物值醉興하여 美의 韻律의 創造가 이룩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詩不誤人人自誤하니 興來情適已難禁”이라고 부르 짓으며, 詩自體의 純靜無垢性を 나타내었다. 그러나, “工夫하는 사람에게 詩가 가장 緊切한 것은 아니다”<sup>13)</sup>라고 하기도 하였으니 사람들이 詩를 배우다가 詩에 精神이 빠져 本心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래서 東方漢文學의 達磨初祖인 崔孤雲에 대하여 “文華是尚”이라 評하였고, 金佔畢齋에 대하여는 “學問하는 이가 아니며, 終身事業이 다

10) 退溪全書 四 言行通錄 卷一 言行通述(p.20)

11) 同上二 卷三十六 答李宏中

“數日前得書及詩……韓文公以不學詩書爲腹空 假使公專意此學 自古安有不學詩書底 理學耶……願公思之前日面勸讀詩 今問讀何書 是公意以讀書爲不切於心學而不欲讀之 此大誤也 故索言耳”

12) 退溪全書一 卷三 詩(p.108)

13) 同上 四 卷五 言行錄類編(p.103)

“又曰 詩於學者 最非緊切 然遇景值興 不可無詩矣”

단 詞華에 있을 뿐이니 그 文集을 보면 알 수 있다”<sup>14)</sup>고 하였다. 이것은 철학적 입장에서 孤雲과 估畢齋를 논평한 것이지 문학적 입장에서 논평한 것이 아니다.

孔子가 “詩三百 一言以蔽之曰 思無邪”라고 詩를 定義하였다. 곧 “詩 三百首를 한마디로 말하던 생각이 純一하고 妖邪함이 없다”는 뜻이니, 詩를 機能效用面에서 바라보았던 것이다. 윤리 도덕가로서의 孔夫子的 詩觀은 敎訓主義的 功利主義的 立場에 있었다. 詩가 情感을 興奮시켜 理性을 해칠까 저어하여 詩人을 共和國에서 追放해야 된다고 主張한 플라톤(Platon)과는 對立的 位置에 선 듯하다. 플라톤과 孔子는 다같이 詩를 機能效用面에서 보면서, 前者는 否定的 見解를 表明했고, 後者는 肯定的 見解를 表明하였다. 그러므로 윤리도덕 군자로서 退溪도 亦是 詩를 機能效用面에서 보았던 것 같다. 그러므로 高尚한 性情을 想像에 의하여 音樂的 形式으로 暗示하면서도 玩物喪志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退溪는 明宗 13年(AD. 1558) 58歲 때, ‘魚灌圃詩跋文’에서 사람과 詩는 正比例가 되며, 그 詩 속에 그 사람의 人格이 서려 있다고 보았다. 대저 詩工이나 사람을 取할 수 없고 人優나 詩를 取할 수 없으니 이는 世上에 傳하지 못할 것이며, 그 詩工에 사람의 人格이 어려 模範이 될 만한 것은 世上에 傳할 수 있다. 사람과 詩를 傳할 수 없는 것을 傳한 이는 그 사람의 병통이다. 그러나 사람과 그 詩를 世上에 傳할 수 있으며, 傳하지 않는 것은 後世 士林의 責任으로 看做하였다.<sup>15)</sup>

그러므로 훌륭한 詩工 속에 그 사람의 훌륭한 人品이 영겨 있는 詩라야 後世에 傳할 수 있다는 詩觀이었다. 프랑스의 文學者 뷔퐁(Buffon)의 警句에 “文體는 사람이다”라고 한 말은 어떠한 文體도 그 作者의 人格의 表現이란 뜻이다. 헨트(Hunt)가 逆으로 “사람은 文體다.(The Man is the Style.)”라고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나, 포스넷(Pasnett)이 “人格이 文學開發의 原理(The Principle of Literary Growth)이다”라고 한 것은 모두 人格이 얼마나 文學에 있어서 重要視되는가를 나타낸 말이다. 사람과 文體와는 不可分의 關係가 있기에 文體를 한 作品으로 본다면 “作品은 사람이요, 사람은 作品이다”라는 새 命題로 表現해도 眞理는 같다.

徐師曾의 「文體明辨」에서도,

“文章이 世上에 重視되는 것은 그 사람의 人格에 있다. 그 사람이 아닐진대 비록 文章이 아름다와서 傳해져도 도리어 병통이 된다”고 말하였다. 곧 人格이 높지 않으면 어떤 技巧을 弄해도 그 文章은 世上에 重視되지 않는다고 한 말이겠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退溪의 詩觀도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蓋有 詩工而於人無取者 有人優而於人未至者 若是者 果可以傳世乎 讀其詩而可喜 求其人而可慕 若是者 果不足以傳世乎”<sup>16)</sup>

14) 同上 四 卷五 言行錄 類編(p. 98)

15) 同上 二 卷四十三 跋 魚灌圃詩集跋(p. 379)

16) 同上 二 卷四十三

人格과 詩工이 갖추어져야만 그 詩가 世上에 重視된다. 어떤 詩工도 人格이 높지 않고서야 世上에 尊重되지 못한다. 사람과 詩와는 不可離의 關係에 있다. 그러므로 退溪의 詩觀도 “詩는 사람이요, 사람도 詩다”란 말로 表現할 수 있다. 훌륭한 詩工 속에 高邁한 인격이 어린 시라야 세상에 존중되고 후세에 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예술과 도덕은 그 미적가치와 도덕적가치가 다르다. 예술작품의 題材가 도덕적이나 아니냐에 따라 곧 그 작품을 도덕적 부도덕적이라고 한다. 오스카·와일드의 소설 “도리안·그레이의 繪姿”(The Picture of Dorian Gray)의 비평같은 것이 그 예다. 그主人公의 생활이 惡魔主義的인 官能追求의 생활인 점에서 부도덕한 작품으로 비난당하였으므로 작자 와일드는 “예술은 도덕과 다르다. 저작엔 도덕적 저작 또는 부도덕적 저작이란 것이 없다. 예술은 오직 善하게 쓰였는가 惡하게 쓰였는가. 그것뿐이다”라고 변호한 것은 영국비평사상에 있어서 유명한 사건이다. 그러나, 톨스토이 같은 이는 예술평가의 중요한 표준을 題材問題에 두고 있다. 원시 기독교적인 종교적 감정을 일으키는 제재를 묘사한 것을 예술적으로 가치있다고 하고, 그 반대의 감정 또는 그것과 무관한 감정을 일으키는 제재를 묘사한 것을 가치없다고 한다. 이 이론은 어찌 잘못이 아니라. 또 聖 메레스가 神의 사랑을 받는 것을 主題로 한 베르니니(Bernini, Giovanni Lorenzo)의 조각 “聖메레스”(Saint Thérôse) 같은 것은 제재가 극히 신성하면서도 그 작품이 주는 효과는 오히려 비속하지만 호가아즈(Hogath, William)의 “긴 街(Gin Street)”라 하는 그림은 그 반대로 “긴 街”의 추잡한 모습을 역역히 그렸으나, 그 미적효과는 그 제재와는 반대로 극히 도덕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예술작품이 도덕적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그 미적 정서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의 저서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있어서 예술을 종교에 연속케 하는 과오에 빠져 제재를 예술평가의 표준으로 삼는 謬見에 빠지기 쉽다. 그러므로, 유교적 입장에서 예술을 보는데 관습화되어 있는 조선조의 유학자들은 거의 이런 견해가 지배적이다. 예술은 그 자체 또는 예술속에 도덕성을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예술 이외에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실현하는 곳에 예술의 도덕성이 있기도 하다. 조선조의 유학자들이 고려가요의 진한 남녀의 연정 등을 그렸다 해서 詞俚不載라 一蹴한 것은 題材를 평가의 표준으로 삼고 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그 도의에 연속케 하는 과오에 빠지게 된 것이다. 유가적 입장에서 문학 예술을 평가할 때는 톨스토이와 같은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또 예술 작품과 작가의 인격과는 正比例한다고 볼 수가 있기도 하나,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어떤 罪人이 獄中에서 어떤 작품을 쓴 것이 명작이었다고 한다면, 작품자체를 두고 볼 때는 세상에 알릴만하고 본다.

그런데 退溪는 性理學者로 도덕군자이긴 하나, 詩짓기를 좋아하고 平生토록 用功함이 많았다. 그의 詩가 枯淡하기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用力이 頗深하기에, 처음 슬쩍 읽어 보면 冷淡한 듯하나, 오래 읽어 보면 그 속에 意味가 있고,<sup>17)</sup> 섭으면

섬을수록 맛이난다.

그의 詩는 淸嚴簡淡하였다. 이것은 그의 인격과 正比例하여 淸았다. 少時엔 杜甫의 詩를 익히고 晩年엔 朱子の 詩를 좋아했다. 그의 格調가 一手에서 나온 것 같았고, 筆法 또한 端重하였다.<sup>17)</sup> 偶吟 一絕 一句 一字라도 반드시 精思更定하여 쉽게 남에게 보이지 않는<sup>18)</sup> 嚴正한 詩作態度를 가졌다. 千鍛萬鍊<sup>20)</sup>과 調律을 통해서 詩作을 이룩하였다. 外的 雕琢으로 內的 意味를 表現하고자 하였다. 그는 淸嚴·枯淡·純靜·勁健·典實한 시를 쓰되, 華彩와 淫哇를 배격하였다. 이것은 確固不動한 理氣哲學觀을 세우고, 그 理氣觀 속에서 事物을 凝視하였을 뿐아니라, 유가 도덕적 윤리의식에서 문학을 바라보는 점도 있었고, 高尚·溫粹·簡淡·端重<sup>21)</sup>한 인격에서 이런 溫敦한 詩格이 확립되었다고 본다.

### III. 隱喻的 歷史意識

退溪는 直喻(simile)보다도 用事論<sup>22)</sup>을 끌어 隱喻(metaphor)로써 主體的 歷史意識을 鼓吹하고 節義를 崇尚하면서 詩的 이미지를 풍겼다. 東國史를 읽다가 金應霖의 韻을 빌어 쓴 詩를 보면 隱喻的 美感 속에 主體的 歷史意識이 영겼다.

蠻觸乾坤計未良 좋은 괴도 없었베라 적이 쳐와도,  
 就爲猛獸就羣羊 그늬가 이리때며 양떼이던가.  
 爭疆爛沸難從漢 한대부터 이강산이 어지러웠다,  
 開國神明實自唐 단군할범 나타연지 실로 唐堯 때.  
 但有名存雖復合 헤어졌다 또 합치니 이튼 남아다,  
 不隨形滅真兼香 형상마저 꺼지잖는 법새와 향기.  
 秋風白日晝窓下 가을바람 햇별되는 창가에 앉아,  
 獨對遺編永憤傷<sup>23)</sup>에 사기를 읽으니까 가슴아파라.

또 治隱 言再의 旌間를 지나치면서 百世淸風의 節義를 찬양하였다.

朝行過洛水 아침에 낙동강을 지나친 말이,  
 洛水何漫漫 그 얼마나 넘실넘실 낙동 저 물결.  
 午憩望鰲山 낮에 쉬며 금오산을 바라보이는,  
 鰲山鬱盤盤 저 산술이 우거져 울창하구려.

17) 同上 四 卷五 言行錄 類編(p.103)

18) 同上 四 卷五 言行錄 類編

“爲詩淸嚴簡淡 類其爲人 少嘗學杜詩 晩喜晦庵詩 往往調格如出一手 筆法端重 人爭求來 亦不彊辭也”

19) 同上 四 卷五 言行錄 類編(p.103)

20) 李退溪書抄 卷九 與鄭子精書 日本刻版 退溪全集下(p.186)

21) 退溪全書 四 卷一 言行錄 實記(p.9-22)

22) 拙著 高麗朝漢文學研究(p.60-62)

23) 退溪全書 一 卷一 詩(p.50)



清流徹厚坤 맑은 물이 두터운 땅을 꿰뚫고,  
 峭壁陵高寒 가파른 벼랑이 높고 차갑네.  
 有村名鳳溪 그 산밑에 한 마을을 봉제라 하니,  
 乃在山水間 저 산과 이 강새에 자리잡았네.  
 先生晦其中 길선생이 이 마을에 숨어 살았기,  
 表間朝命頒 이집앞에 상명(上命)으로 정문(旌門)세웠네.  
 大義不可撓 대의란은 굽힐 수 바이 없어라,  
 豈曰辭塵寰 어찌서 현실을 피했다 하랴.  
 千載釣臺風 엄자릉(嚴子陵)이 낚시하던 천재 저 풍성.  
 再使激東韓 또한번 이 동방에 불어 닥쳤네.  
 扶持已無及 나라를 부지하긴 하마 때늦어,  
 植立永堅完 절개세워 길이길이 꺾기지않네.  
 丈夫貴大節 대장부의 귀히 여긴 하고 큰 절개,  
 平生知者難 평생동안 알아 줄이 매우 드무네.  
 嗟爾世上人 아! 온누리 사람들이여!  
 慎勿愛高官<sup>24)</sup> 고관을란 삼가히 탐내지 마오.

이 시 속에 “先生晦其中 表間朝命頒 大義不可撓 豈曰辭塵寰 千載釣臺風 再使激東韓”이라 하였으니 治隱의 淸風高節을 千載 釣臺風에 부렸다. 用事的 隱喩로써 시적 이미지를 살려 百世淸風을 기렸다. 富貴는 얻기 쉬워도 名節은 保全키 어렵다. 治隱은 名節을 능히 붙들었으므로 그를 讚揚했다. “千載釣臺風 再使激東韓”은 이 詩의 눈이다.

그리고 退溪 41歲(AD 1541) 때, 江原道 淸平山을 지나치다가 淸平居士 李資玄을 생 각하면서 느끼는 바 있어 七律을 짓고 序를 썼다.

峽東江盤機道傾 사닥다리 구불구불 강따라 벼랑  
 忽逢雲外出溪淸 홀연히 흘러가네 구름밖 시내  
 至今人說廬山社 이제껏 白蓮社를 일렀건다는,  
 是處君爲谷口耕 이곳이야 밭갈던 임의 곡밭께.  
 白月滿空餘素抱 저창공 달빛 속에 그녀 어렸고  
 晴嵐無跡遺浮榮 이맑은 산기운에 영화 버렸네.  
 東韓隱逸誰修傳 우리의 은일전을 누가 전하리  
 莫指微疵弄白珩<sup>25)</sup>해 작은 티끌집어 구슬 버릴까.

晋나라 慧遠의 白蓮社 故事와 漢나라 鄭子眞이 谷口에서 밭갈이 한 故事인 ‘廬山社와 谷口耕’을 끌어 希夷子를 찬송하였다. 廬山社 谷口耕이 지나는 隱喩的 含蓄과 歷史的 故實의 이미지가 흐른다. 옛 사실을 끌어다가 멋진 對句를 이룩하였다.

頷聯의 對句 속에 希夷子가 있다. 白月滿空과 晴嵐無跡이 주는 言語의 諧調性和 달빛, 산기운이 갖는 이미지 속에서 希夷子로 이어졌다. 首·尾聯은 散句로 끝났으나, 頷聯과 頷聯은 對句로서 調和를 이루었다. 言語의 鍊金術과 隱喩로써 希夷子의 節介는 隱逸

24) 退溪前書 一 卷一 詩(p.47)

25) 同上 一 卷一 詩(p.54)

性이 잘 表現되어 있다.

淸平에서 隱居한 高士 李資玄에 대하여 東國通鑑에 貪鄙吝嗇하다고 非謗하였으나, 그 史論이 옳지 못함을 反駁했다. 李資玄이 임금의 招聘을 사양하는 글<sup>26)</sup> 중에 “새를 기르는 方法으로 새를 기르면 音樂을 아뢰던 근심이 없을 것이요, 고기의 기쁨을 살피서 강호의 기쁨을 알게 해 주옵소서”<sup>27)</sup>란 글귀가 있는데, 俗人이 그의 胸中을 어이 알리오. 世上功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山林에 묻혀 修道하며 살아가는 希夷子의 心境을 알아 주고 正當한 史論을 폈다. 그의 高邁한 性品을 기리면서 七律로써 마음의 창을 열었다.

宣祖때 李晬光도 退溪의 名詩인 ‘過淸平山有感’의 頷聯과 結聯만 들고 史官이 李資玄을 非難하되 貪嗇했다고 極言한 것은 吹毛를 찌지 못했으며, 退溪의 이 詩가 正論이라고 評하였다.<sup>28)</sup> 退溪는 詩的 美感을 끌어 高士 希夷子의 高潔性을 기리는 正論을 폈다. 退溪도 希夷子처럼 大自然 속에서 俗物根性을 비웃고 爲己之學에 힘써 立言垂後함으로써 인간을 교도하고자 하는 哲人의 心境이 生動하는 듯하다.

#### IV. 自然眞樂과 閑靜性

退溪는 어릴 제부터 뜻이 宦路에 있지 않고 自然을 사랑하고 자연 속에서 자유로이 閑靜하면서 道 닦고 立言垂後하려 하였다. 그는 一時 벼슬하긴 하였으나, 얼마 안되어 南歸하여 고향 陶山泉石에 안겼다. 世路가 험곳고 벼슬이 높아지자 병약한 몸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한 原因이지만은 그것보다도 천성이 전원을 동경하고 자연을 끌어들이어 그 속에서 학문을 성취하고자 한 것이 主된 原因이었다.

그는 天性이 전원을 그리워했고, 山水의 바탕을 근본으로 삼되 靜을 사랑하고 俗된 시끄러움을 좋아하지 않았다.<sup>29)</sup>

晩年에 ‘守靜’이란 시에서

我性愛山隱 塵紛缺消歇 一朝來嘗世 已覺神外滑 何況都城中 欲海競頭越<sup>30)</sup>

라고 읊기도 하였으니 陶淵明의 ‘歸園田居’에 「少無適俗韻 性本愛邱山 誤落塵網中 一去十三年 羈鳥戀舊林」<sup>31)</sup>이란 말과 상통한다. 또 和陶集飲酒二十首(四十七歲 때)에 「我本

26) 退溪全書 一 卷一 詩(p. 52-54)

27) 同上 (p. 53)

南華經에 바래새 鷦鷯가 눈다리에 나타나자 老侯가 大韶樂을 아뢰며 한소로 반찬을 삼았으니 鷦鷯는 슬피한 지 三日만에 죽었다. 이는 새 기르는 方法으로 새를 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莊子는 惠子와 함께 濠梁上에 놀제, 莊子는 “付魚가 조용히 나와 노니 이것이 고기의 즐거움이야” 하자 惠子는 “그대가 고기가 아닐진대 내가 아닌데 어찌 내가 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 하리오”라고 하였다.

28) 芝峰類說 卷十三 文章部 東詩

29) 退溪全書(一) 卷一 詩 和陶集飲酒 二十首(p. 71)

30) 同上(一) 卷五 詩 守靜(p. 146)

31) 陶淵明集 卷二 歸園田居 五首中其 첫首

山野質 愛靜不愛喧 處喧固不可 愛靜亦一偏 君看大道人 朝市等雲山<sup>32)</sup>이라 하였으니, 시끄러운 세상을 멀리하고 靜인 大自然을 좋아하면서 그 속에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그는 文科에 오른 三年 뒤 三十六歲 때, (中宗 丙申 A.D. 1536) 서울에 있으면서 구속된 티끌 세상을 떠나 自由스런 田園樂을 그리워했다. ‘感春’(丙申)詩<sup>33)</sup>에 그 田園憧憬이 잘 나타나 있다.

清晨無一事 상그린 아침에 할 일도 없이,  
 披衣坐西軒 의관차려 서쪽말에 앉았으니는.  
 家僮掃庭戶 아이들이 일찍 일어 트랙을 쓸고,  
 寂寥還掩門 다시금 문을 닫자 고요도 할 제.  
 細草生座砌 새싹이 돋아났네 그득한 섬돌,  
 佳樹散芳園 꽃동산에 흩어졌네 푸른 나무들.  
 杏花雨前稀 봄비맞고 살구꽃은 드문드문해,  
 桃花夜來繁 밤사이에 웃어라 활짝 복숭아.  
 紅櫻香雪飄 향설이 나부끼듯 붉은 앵두꽃,  
 綸李銀海翻 은빛바다 출렁이듯 하얀 오얏꽃.  
 好鳥如自衿 새들도 자랑스레 봄을 맞아서,  
 間關晷朝喧 아침별에 한가로이 지저귀누나.  
 時光忽不留 광음은 홀연히 아주 가버려,  
 幽懷恨難言 섭섭하기 그지없다. 그윽한 회포.  
 三年京洛春 삼년동안 서울에서 봄을 보낼 제,  
 局侶駒在轅 땅아지가 수레채에 매인 듯하오.  
 悠悠竟何益 부질없이 보냈거니 무슨 이익고,  
 日夕愧國恩 밤낮으로 부끄럽네 나라 그 은혜.  
 我家清洛上 해 맑은 낙동강위 그곳 우리집,  
 熙熙樂閑村 평화롭고 즐거운 남녘 내 고향.  
 隣里事束作 이웃동네 농부들이 봄같이 한창,  
 雞犬護籬垣 닭과 개가 지키누나 저 울타리를.  
 圖書靜几席 책권들이 서재에 고요도 해라,  
 烟霞映川原 연기놀이 저렸구나 냇가의 언덕.  
 溪中魚與鳥 시내속엔 평화롭네 새와 고기들,  
 松下鶴與猿 숲아래엔 한가롭네 학과 잔나비.  
 樂哉山中人 즐거운저 저 배속의 그 사람이여!  
 言歸謀酒尊 그 고향에 돌아가 술을 빚어라.

少無適俗韻 性本愛邱山 誤落塵網中 一去十三年  
 羈鳥戀舊林 池魚思故淵 開荒南野際 守拙歸園田  
 方宅十餘畝 草屋八九間 榆柳蔭後簷 桃李羅堂前  
 暖曖遠人村 依依墟里烟 狗吠深巷中 雞鳴桑樹嶺  
 戶庭無塵雜 虛室有餘閒 久在樊籠裏 復得返自然  
 (淵明 42歲頃作 여기 自然이란 속박이 없고 作爲 있는自由)

32) 退溪全書一 卷一 詩 和陶集飲酒 二十首(p. 71)

33) 同上 卷一 詩 感春(p. 47)

(退溪 36歲 때 지은 五言古詩)

陶山十二曲前六曲(筆者所藏本)

농부들은 밭갈이할 때, 닭과 개가 울타리를 지키며, 냇가에 고기와 새, 솔아래엔 학과 잔나비가 한가롭고, 노을이 자욱한 陶山의 閉靜을 그리워했다. 烟霞를 집으로 삼고, 風月을 벗으로 삼아<sup>34)</sup> 萬卷生涯로 爲己之學을 이루고자 했다. 그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草野愚生이 이렇다 어떠하랴 하물며 泉石膏肓을 고쳐 무삼하랴”라고 읊었듯이 타고난 泉石膏肓 속에서 生을 찾았다. 動的世界에서 靜的世界로 달렸다. 그의 自然은 客觀的 自然보다 主觀的 自然으로 끌어 들였다. 그의 閑靜自然이란 遊樂에 生을 보내는 閑雅한 貴人의 경지도 아니고, 人生의 苦惱를 잊고자 하는 隱士의 경지도 아니고, 仙都나 隱棲地의 그것과는 그 軌를 달리하고 있다. 人間 속에 있으면서 人間 속 陶山에서 나를 찾았다. 凡百의 詠物詩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人間에서 벗어난 自然物이 아니라, 人間 속에 있는 自然物이었다. 그 中에도 主된 自然物은 梅·竹·松·菊 이었다. ‘陶山雜詠’에 「蒙泉의 산기슭을 깎아 巖樓軒이 마주 보이게 壇을 모아 梅·竹·松·菊을 심어 節友社」라 불렀다. 退溪는 節義를 崇尚했다. 梅竹松菊의 節에 마음을 쏟아 節友로 삼았다. 그 中에도 梅竹을 더욱 사랑하였으며, 유독 梅兄을 酷愛했다. 옛날의 愛山者는 名山을 찾아 自托하였으나, 그는 淸涼山에 살지 않고 陶山에 살았다. 왜냐하면, 淸涼은 壁立하기에 늙고 病든 사람은 便安치 않으며, 樂山樂水가 缺一不可하니 洛川이 淸涼을 지나되 山中에선 보이지 않는다. 淸涼에 사는 것이 願이긴 했으나, 淸涼을 버리고 陶山을 取하되, 山水를 兼해서 老病을 다스리고자 했다.

孔孟의 山水觀도 曾點과 같다는 感歎이 沂水上에서 나왔고, 朱子도 卒歲의 願이 廬山 마루에서 나왔다.<sup>35)</sup> 詩가 心學工夫에 緊要하다면, 山水가 詩를 짓게 하고 心性에도 알맞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退溪는 山水를 마음에 끌어들이어 養性하였다.

退溪의 自然描寫는 風景의 描寫가 아니라 意境의 表現이요, 客觀的 寫實이 아니라 主觀的 寫意였다. 自然을 바라보는 눈이 靜的 直觀에서 意外意의 魂이 서려 있다고 하겠다.

## V. 花木詩와 淸眞性

退溪는 2千餘 首의 漢詩中에 花木詩 140餘 首를 남겼다. 梅 100餘 首, 竹 30餘 首, 菊 8首, 松 3首, 芙蓉 2首, 紅桃 1首, 柳 1首, 梨花 1首, 牡丹 1首, 躑躅 1首, 四季 1首, 芍藥 1首, 瓜 1首 등이 그것이다. 四君子에 드는 梅·竹·菊이 전체 花木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中에도 매화시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는 특히 梅花를 사랑하면서 100餘 首의 매화시를 지었다. 옛 노래에

34) 退溪全書一 卷三 詩 陶山雜詠并記(p. 101)

又其東爲蒙泉 泉上山脚鑿 令與軒對平築之爲壇而植其上梅竹松菊 曰節友社(辛酉日南至 明宗 16年 (A. D. 1561) 退溪 61歲 時)

35) 退溪全書一 卷三 詩(p. 102~103)

「牡丹은 花中王이요, 向日花는 忠臣이로다. 蓮花는 君子요, 杏花는 小人이라. 菊花隱逸士요, 梅花는 寒士로다. 박꽃은 老人이요, 石竹花는 少年이라, 葵花巫堂이요, 海棠花는 娼女로다. 이 중에 梨花詩客이요 紅桃碧桃三色桃는 風流郎인가 하노라」(李衡祥歌曲集·百花譜)

라고 불렀다. 退溪가 읊은 꽃 가운데, 「梅花·蓮花·菊花·紅桃·葵花·牡丹」이 百花譜에도 나타나 있어 그 屬性이 묘사되어 있다. 「梅花는 寒士, 蓮花는 君子, 菊花는 隱逸士, 紅桃는 風流郎, 葵花는 巫堂」이라고 비유하였으니 대체로 맞는 비유이다.

退溪는 대화의 寒士의 高潔성과 美感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우리의 韓國 畫엔 四君子 곧 梅蘭菊竹을 重視하였다. 그 四君子 中에 蘭을 빼고는 모두 시적 표현을 하였다.

그 옛날 田園詩人 陶淵明은 愛菊함으로써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이란 千古의 名句를 남겼고, 宋의 大詩人 林和靖은 梅妻鶴子로 삼고, 梅花를 酷愛함으로써 “疎影橫斜水清淺 晴香浮動月黃昏”이란 絶世의 名句를 남겼고, 宋의 道學君子인 周濂溪는 연꽃을 酷愛함으로 愛蓮說<sup>36)</sup>이란 名文을 남겨 後人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여기 대화사랑은 逋仙 已去에 대화사랑이 退溪에 이르러 새로 강열해 졌다.

陶山雜詠 十八絶中 節友社에

松菊陶園與竹三 梅兄胡奈不同參  
我今併作風雪契 苦節清芬儘飽諳

이라 한 것을 보면, 節友社의 동산에 松菊竹이 섞어져 苦節을 상징했는데, 梅花도 苦節과 晴香이 特異하거늘 前記 松菊竹節에 參禮하지 못하였는고? 하면서 아쉬워했다. 退溪는 梅花의 苦節晴香을 사랑하면서 하고 많은 서정을 吐露하였다.<sup>37)</sup>

許蛟山이 退溪의 古體詩인 「湖堂梅花暮春始開用東坡韻二首」와 「湖堂晚起用東坡定惠院月夜偶出韻」을 들고, 性理學者일 뿐 아니라 詩도 諸公을 壓倒한다고 極讚하였다. 上記 用東坡韻二首中 七言古詩 한 首를 적어 그 內質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用東坡韻이란 東坡詩韻을 用했다는 뜻이다. “用韻”이란 원칙으로는 一詩中에 原作韻을 쓰면 된다. 그러나, 用何何韻이라 하면서도 “次韻”과 같이 짓는 수도 많다.

藐姑山人臘雪村 저 설한에 藐姑인양 눈지는 마음  
鍊形化作寒梅魂 다듬어 지어냈네 한매 꽃송이  
風吹雪洗見本眞 찬바람 눈에 씻겨 본색 아련해  
玉色天然超世昏 타고난 하얀얼굴 세속 넘어라  
高情不人衆芳騷 騷經의 못꽃에도 梅兄없거니  
千載一笑孤山園 천년뒤 이 孤山에 활짝 웃어라  
世人不識噴類沈 葉公인양 사람들이 모두 몰라도

36) 古文眞寶後集 說類

37) 退溪全書一 卷一 詩(p.57)

念我獨得欣逢溫	溫伯雪子	만난듯이 기뻐하누나
神淸骨凜物自悟	스스로 깨쳤네라	조출한 神骨
至道不假齋霞噉	붉은 늘 머금었네	솟된 그 妙道
昨夜夢見縞衣仙	소복한 선녀 만나	간밤 꿈속에
同跨白鳳飛天門	하늘을 지 솟았네	흰봉을 타고
瞻宮要授玉杵藥	月宮들어	玉결구의 선약을 비니
織女前導姮娥言	직녀아씨	항아님께 말을 전하네
覺來異香滿懷袖	꿈을 깨자	그 향내가 소매 가득해
月下攀條傾一罍	저 달아래	가지잡고 한잔 들어라

退溪가 四十四歲(A. D. 1544) 때, 東坡韻을 빌어 쓴 三首 中の 하나이다. 東坡風의 詞麗美가 풍기긴 하나, 淸眞하고 高潔한 眞像이 描寫되었다. 「風吹雪洗見本眞 玉色天然 超世昏」의 超色相과 「神淸骨凜物自悟 至道不假齋霞噉」의 神骨妙道を 타고 天上을 翱翔할 듯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어 「昨夜夢見縞衣仙 同跨白鳳飛天門 瞻宮要授玉杵藥 織女前導姮娥言」이라고 表現하였으니 疎影南枝의 高尚美가 構造的 寓喩性을 끌어 天上仙子로 昇化되었다. 그 梅兄이 꿈길에까지 나타났다. 結聯에 이르러 「覺來異香滿懷袖 月下攀條傾一罍」이라고 부르짖었다. 꿈깨자 淸香이 풍겨 오므로 달아래 매화까지 잡고 한잔 술을 기울이는 것이 서렸다. 俗世를 뛰어 넘는 玉色夢이 詩中에 흘러 넘친다.

七絶名唱 속에도 淸眞한 梅花의 寒士의 모습이 자연에 조화되어 인간을 넘어섰다.

孤山梅隱(鄭子中求題屏畫八首)

返棹歸來鶴趁人	삿대 돌려 돌아오자	학도 따라와
梅邊閒坐自淸眞	매화 곁에 앉으니	天然 그대로
門前想亦非凡客	그 문을 찾는 이도	속객 아닐테
底事逡巡尚隱身	무슨 일로 우물쭈물	몸을 숨기나

溪齋夜起對月詠梅

壽玉山頭第一仙	군옥산 머리에	제일의 신선
永肌雪色夢娟娟	빙설인양 하얀	살갗 꿈속 고와라
起來月下相逢處	달아래	마장이다 매화 만나니
宛帶仙風一粲然	완연한	선풍도풀 방긋 웃어라

「孤山 梅隱」은 六十二歲 때 지었고, 「對月詠梅」는 七十歲(終天하던 해) 때 作品이다. 返棹鶴還하고, 鶴이 梅邊에 閒坐하니 淸眞하기 그지 없다.

永肌雪色은 梅花의 淸眞 高潔性을 나타내며, 꿈속의 아릿다운 神仙은 매화의 化身이다. 月下에 相逢하니 宛帶仙風이라 粲然한 一笑 속에 무한한 정회가 감돈다. 그 순간에 나와 매화는 조화되어 物我一體의 경지다. 그러나, 매화의 淸眞高潔은 자자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는 매화 속에서 梅魂을 받아 서정을 아로새겼다. 그의 매화시는 그의 高潔한 인격의 發露였다고 볼 수 있다. 四君子中の 하나인데도 우리들이 古來로부터 애송하여 왔다.

일찍이 「詩經」에 「秩秩斯干，幽幽南山，竹如苞矣 如松茂矣」(詩經小雅 斯干篇)라 하여 “竹苞松茂”를 찬송하였다. 新築落成한 집의 下部의 굳음이 叢竹같고, 上部는 무성한 슬과 같음을 표현하였다. 이 집에 사는 兄弟는 友愛가 깊으리라는 뜻이다.

또 竹溪六逸·竹林七賢·竹高七賢 等 故事가 유명하고, 東坡는 「江頭千樹春欲晴，竹外一枝斜更好」라고 竹外의 梅花의 閑靜趣를 그렸다. 말은 平易하나 뜻에 따라 造語하여 工巧함을 이루었으니, 綠筠軒에 이르러서는 그윽한 風趣가 서려 있다.

可使食無肉	음식엔 고기 반찬 없을지라도,
不可居無竹	집에는 꼭 대남이 있어야 하네.
無肉令人瘦	고기가 없으면, 사람 여위고,
無竹令人俗	대남이 없으면, 속물되리라.
人瘦尚可肥	여위도 살쩔 수는 있겠지마는,
士俗不可醫	속물된 선비는 고칠 수 없네.
傍人笑此言	곁사람이 이말듣고 비웃는구려,
似高還似癡	고상한듯 도리어 바보같다고.
若對此君仍大嚼	대심고 고기도 먹을적이면,
世間那有楊州鶴 <sup>38)</sup>	세간에 楊州鶴이 어이 있으랴.

어떤 스님이 사는 小室을 綠筠軒이라 한다. 대는 예로부터 風流清雅하고 貞節이 높고 俗되지 않는 점을 선비들이 사랑하였다. 食肉과 種竹의 두 樂中에 고기를 버리고 대를 심는 風流를 取하겠다고 부르짖었다.

退溪도 31餘首의 대에 대한 시를 남겼다.

雪竹歌	退溪全書 卷一(p. 64)	七言古詩
雪月竹	"	(p. 121) 五言絕句
風竹	"	(p. 121) "
露競	"	"
雨竹	"	"
抽筍	"	"
穉竹	"	"
老竹	"	"
枯竹	"	"
折竹	"	"
孤竹	"	"
題靈川畫竹八絕	卷二 外集卷一(p. 551)	五言絕句
竹	"	別集卷一(p. 536) 七言絕句
種竹	"	別集卷一(p. 519) 五言絕句
風竹	"	別集卷一(p. 526) 七言絕句
雪竹	"	別集卷一(p. 526) 七言絕句
移竹次龍康節高竹八首	卷三 續集 卷一(p. 34)	五言律

38) 古文眞寶前集 五言古風短篇  
東坡詩集 卷十三

五言絶句 19首, 七言絶句 3首, 五言律 8首, 七言古詩 1首 等 31首에 이른다.<sup>1)</sup>  
五言絶句인 “雪月竹” 속엔 苦節이 더욱 굳고, 竹心이 더욱 깨끗함을 노래하였다.

玉雪寒堆壓 水輪遍映徹  
從知苦節堅 轉覺虛心潔

「눈맞아 휘어진 대를 뒤라서 굽다런고,  
굽을 節이던 눈속에 푸를소냐.  
아마도 歲寒孤節은 너 뿐인가 하노라」

라고 한 高麗末의 忠臣 元天錫의 노래의 意趣와 軌를 같이하고 있다.

또 五言絶句인 “孤竹”에 이르러서는 孤竹君의 二子 伯夷叔齊가 武王이 殷을 멸망케 하자, 周의 黍粟를 먹지 않고 首陽山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먹다가 주려 죽은 墨胎節이 孤竹속에 영졌다. 제목 “孤竹”은 孤竹과 孤竹君의 重義가 표현되어 있다.

聞善蓋歸來 易暴將安適  
從此更成孤 有粟非吾食

「岩畔 雪中孤竹 반잡고도 반가왜라,  
문노라 孤竹아 孤竹君의 배 어떤인다  
首陽山 萬古清風에 夷齊본듯 하여라.」

라고 읊은 勝國 忠節인 徐甄의 夷齊節이 孤竹에 옮겼다.

移竹次韻康節高竹 八首는 다 五言律인데,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詩는 앞에 든 바와 같이 깨끗한 竹節이 墨胎節에 옮겨 採薇曲 속에 어려 있다.

穉竹始成行 已似伯夷清  
挺然衆世中 自可樹風聲  
讓國一時義 恥粟百世情  
長歌採薇曲 孰方鳴不平

退溪는 매화의 清真高潔性和 국화의 傲霜苦節性和 대의 貞心勁節性を 사랑하면서 서적 표현 속에 인간속에서 인간다운 인간을 응시했다. 더구나, 대의 깨끗한 節義와 虛心을 墨胎節에 비유하고, 墨胎節은 대의 절의에 化하였다.

## Ⅶ. 哲學的 言外有意性

詩의 直喻보다 詩의 隱喻와 言外有意性이 그의 詩에 生動하며 또한 溫雅한 純靜性이 풍긴다.

어릴적부터 自然林泉 속에서 자라났고, 天性이 樂山樂水하기를 좋아했기에 남다른 느낌이 많았다. 退溪가 十八歲(中宗 十三年 A.D. 1518) 때 지은 ‘野塘詩’는 朱子の 觀



書有感詩인 이른바 ‘方塘詩’와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다.

露草天天繞水涯 이슬풀이 아릿다이 물가 들렀고,  
小塘清活淨無沙 작은 연못 맑고 조해 모래도 없고.  
雲飛鳥過元相管 구름 피고 뉘새 날아 본디 그렇고,  
只怕時時燕蹴波<sup>39)</sup>리때로 물찰까봐 재미 두렵고.

詩는 表現된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두둔하지도 말고 깎아 보지도 말아야 한다. 부질없이 억지로 무엇을 隱喻하고 象徵한 것처럼 誇大하게 鑑賞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 詩的 言語와 心像을 읽어 보면, 言外有意性이 內包되어 있음을 느낀다. 어떤 哲學的 鑑喻美가 言外에 흐른다.

七言絕句 仄起式 偏格 上平聲歌韻(涯·沙·波) 起句는 現象 곧 外的 動觀, 그 나타나 있는 모습이며, 承句는 自性清心 곧 心體요, 轉句는 自然의 理法, 天理의 運行이요, 結句는 人欲 物慾이 心體에 點塵케 함을 경계한다.

李青蓮이 “衆鳥高飛盡 孤雲獨去閑”이란 시상과 통하는 것은 轉句라 할 수 있다. 이른바 轉句의 “雲飛鳥轉過”나 青蓮의 “雲去鳥飛”가 같은 시상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구름이 피고 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天道 天理의 運行 그 자체를 메타포 아렸다고 본다. 그러므로, “天行은 健”이란 말이 切實하다.

또 “小塘의 淸活水”는 天賦의 本體요, 心體라 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물은 實體요 本體라 할 수 있다. 그런데, “只怕時時燕蹴波”라 한 것은 재미가 때때로 물결을 찰까 두렵다는 표현이다. 재미가 물을 차면 물위에 잔잔한 물결이 인다.

물은 道心(理), 물결을 人心(氣)이라 비유 한다면, 純善인 本體에 有善惡의 人欲으로 더분게 할까 저어하였다. 때때로 外的 形氣로 나타난 티끌을 닦아서 그 티끌이 묻지 않게 해야 된다는 뜻이 內包되어 있다고 해석된다(時時勤拂拭 無使着塵埃). 물은 天理(本體)로 純善이나, 물결은 人欲으로 有善有惡이라 할 수 있다면, 道心은 四端이요, 人心은 七情이란 결론에 이른다. 곧 “四端은 理之發, 七情은 氣之發”로서 理氣로 分屬하는 수도 있다. 理氣二元論에 있어 性은 곧 理다. 在心하여는 性이요, 在事하여는 理다. 心은 性情의 主로써 心의 理理로서의 性은 太極이요, 心의 動靜은 氣로서 陰陽이 된다. 여기에 人心道心の 理氣二元觀으로 표현된 詩的 哲理詩라 풀이 할 수도 있으나, 華嚴哲學에서는 물이 파도요 파도가 물이라 생각했다. 그리하여 물은 本體요, 파도는 現象이라 했다. 그리하여 물은 本體요, 파도는 現相이라 했다. 實體 즉 本體는 眞如요, 現相은 生滅이라 했다. 다음엔 眞如門과 生滅門이 있다고 했다.

물 위에 지는 파도도 물이다. 그러므로 水是波요 波是水다. 理와 事(氣)의 關係로 보면 理는 絕對不變의 理이요 無作用이나, 事(氣)는 現象으로 作用하는 것이며, 물과

39) 退溪全書 四 卷一 實記(p.13)

과도는 不二라 했다. 그래서 理事無礙法界觀 속에서 우주를 응시하였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인데, 人心道心이라 이르는 것은 性命과 形氣의 구별이며, 情도 하나뿐인데, 혹은 四 혹은 七이라 한 것은 理를 專言함과 氣를 兼言함이 같지 아니하다. 故로 人心과 道心은 서로 兼할 수 없고, 서로 始終한다. 四端은 七情을 兼할 수 없으나, 七情은 四端을 兼한다. 四端은 七情의 전부임만 같지 못하고, 七情은 四端의 純粹함만 같지 못하다.<sup>40)</sup> 그런데, 人心道心은 비록 二名이나 그 根源은 一心이며, 人心과 道心은 서로 兼攝할 수 없고, 서로 始終한다고 한다. 七情은 四端을 兼하나, 四端은 七情을 兼할 수 없다. 七情은 情의 全部이며, 四端은 情의 全部인 七情中の 善一邊만을 指稱한 것이다. 栗谷의 四端 七情論은 奇高峰의 四七論과 같이 七包四의 입장이나, 退溪의 四七論이 七對四로 그것을 理氣에 分屬시킨 것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栗谷의 理通氣局 氣發理乘說은 華嚴哲學의 영향을 받은 것이리라.

退溪가 어릴 제의 哲理的 시적 표현이 만년 理學을 大成한 哲學原理로 昇華되었다. 最晩年 68歲 때, 지은 “守靜”에서 「守身엔 꺾이지 않음을 貴하게 여기고, 養心엔 꺾이지 않은 상태를 좇으니 진실로 靜으로 爲本하지 않으면 動하나 車에 땅에 매는 나무가 없는 것과 같다」<sup>41)</sup>고 하였으니, 靜을 根本으로 삼되 靜이 動을 制御한다고 主張하였다.

그러나, 宋의 范蘭溪浚은 「百憂가 번거로우나 至靜者는 泰然自爲라」했다. 退溪는 이런 理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自若二字만으로는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止水는 마음과 같이 靜을 本體로 삼고 있으나, 動時엔 과도가 洶洶하므로 靜을 찾기 어렵다. 꺾여 내버려 둘 때는 靜하지 않지만 靜이 아니라고는 할 수도 없고, 물결이 그치면, 원모습대로 깊이 靜에 잠긴다.

本體는 作用에 따라 없어지니 靜이 없는 것 같으나, 本性은 끝내 없어지지 않고 根本은 그대로 있다. 靜은 다만 自若하다고만 말한다면, 蘭溪는 너무 깊게만 말한 것이 아닐까<sup>42)</sup>

라고 읊었다.

靜을 體로 삼고 물결을 百慮(現象)에 비유했다. 動靜互用에서 말한다면, 動은 靜에서 힘 입는 것이 많지만 靜은 動에서 힘 입는 것이 적다. 動時의 힘은 靜時에 지어지는 것이니 靜時에 이미 動할 原理를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本體의 마음에 汚染되기 쉬운 것은 欲心이다. 그러므로 靜時 工夫를 통해서 人間이 슬기롭게 될 것이다. 「萬理는 預悟하는 것이 아니라, 眞心の 實體에 파고 들어가

40) 栗谷全書 卷九 答成浩源  
心一也而謂之道謂之人者 性命形氣之別也 情一也而或曰四或四七者 專言兼無言氣之不同也…… 四端不如七情之全 七情不如四端之粹

41) 退溪全書一 卷五(p.146)  
守身實無撓, 養心待未發, 苟非靜爲本, 動若車無軌

42) 退溪全書一 卷五 詩(p.162)  
止水如心靜爲體 動時波涵靜難尋  
縱饒不靜非無靜 浪息依然水靜深  
體隨用失如無靜 性不終亡本固存  
只說靜爲元自若 蘭溪無乃太深言

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純貞한 靜的 世界를 本體로 하여 沈潛된 敬工夫 속에서 動的 世界를 制御하고 善意志로 止揚하려는 溫敦의 性情이 詩 속에 靈動하고 있다.

## VII. 回文詩의 平淡性

退溪의 二千餘 首의 詩중에 回文詩는 다만 한 首 뿐이다. 이 回文詩는 蘇蕙가 시작하였다고 하나, 劉纒은 道源이 시작하였다고 하기도 한다. 道源이 어느 때, 사람인지 알 수 없다. 皮日休의 ‘雜體詩序’에 晉溫嶠 때, 비로소 回文詩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侍兒小名錄’에 “前秦 安南將軍 竇滔가 첩인 趙陽臺를 別堂에 두고 사랑하니 아내 蘇求가 失心하여 괴로워하였으므로滔가 매우 한탄하다가 襄陽守로 전근되자 陽臺를 데리고 부임하고 아내 蘇氏에게 소식이 끊겨졌다. 蘇氏가 매우 슬퍼하면서 回文二百首를 지어 織錦하니 計八百餘字를 가로 세로 반복해도 다 문장이 되므로 이것을 璇璣圖라 하였다. 중(蒼頭)을 시켜 襄陽에 갖고 가니滔가 織錦項을 보고 그 絶妙함에 느껴 이에 수레를 갖고 가 蘇氏를 맞이하였다”라고 하니 이른바 「織綿璇璣圖」다.

回文이란 것은 順讀·逆讀·縱讀·橫讀해도 뜻이 통하는 詩를 말한다.

東坡의 ‘和人回文’<sup>43)</sup>五首의 첫首를 들어 보면,

紅窓小泣低聲怨 永夕春寒斗帳空  
中酒落花飛絮亂 曉鶯啼破夢忽忽(順讀)

忽忽夢破啼鶯曉 亂絮飛花落酒中  
空帳斗寒春夕永 怨聲低泣小窓紅(逆讀)

이것은 七言絶句의 回文詩다. 東坡는 이 시체를 비교적 많이 썼다. 退溪의 回文詩는 七言律한 首뿐이지만 매우 안온하고 사실적이다.

### 次松岡回文韻<sup>44)</sup>

高樹生風來爽榻 높은 남에 바람불어 서늘한 걸상,  
薄雲漏日映疎簾 구름사이 햇빛 새어 발을 비추네,  
桃枝亞<sup>45)</sup>重仁含露복숭아 가지눌러 이슬 먹음고,  
竹笋添新影出簷 죽순이 새로돋고 처마 그림자.  
醪釀麥濃思社伴 보려 빛은 탁주괴니 벗이 그림고,  
室生塵久憶書籤 방안엔 오랜 먼지 책을 생각네.  
驚連大釣曾違計 자라를 이어 낚야 계획 빛나고,  
落 落人坊注瑣織 낙낙한 인간에서 잔일 뜻두네.

七言律 仄起式 平聲 鹽韻(簾·簷·籤·織)

43) 東坡集 卷四十七

44) 退溪全書二 別集 卷一 詩(p. 530)

45) 亞重의 亞은 壓의 뜻, 음은 “암”이다. 杜甫詩〈花蕊亞枝紅〉

織瑣注坊人落落  
 計違會釣大連鰲一韻  
 籤書憶久塵生室  
 伴社思濃麥醞醪一韻  
 簷出影新添笋竹  
 露含仁重亞枝桃一韻  
 簾疎映日濕雲薄  
 榻爽來風生樹高一韻

〈逆 讀〉

七言律 仄起式 平聲 豪韻(鰲·醪·桃·高)

작자가 趙松岡의 回文韻에 次하여 七言律을 지었다. 지은 때는 첫여름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별다른 흠이 없고, 평화롭고 안온한 시골의 景物이 시속에 生動하고 있다. 平凡하던 서도 素淡한 서정이 서렸다. 韻聯과 頸聯이 對를 이루었으며, 韻聯의 表現은 이 시의 絶頂이다. 平仄에도 하자가 없다. 素朴하고 閒靜한 田園의 초여름 풍경과 人情味 속에 一片의 叙情을 불태우며, 작자는 아련히 앉아 思索에 잠겼다.

平仄法은 아래와 같다. (○ 平聲 × 仄聲 ○ 韻字)

高樹生風來爽榻  
 薄雲濕日映疎簾  
 桃枝亞重仁含露  
 竹笋添新影出簷  
 醞麥濃思社伴  
 室生塵久憶書籤  
 鰲連大釣會違計  
 落落人坊注瑣織

七言律 仄起式으로 平聲 鹽韻(簾·簷·籤·織)